

수능특강 115쪽



누항사(陋巷詞) | 박인로

초경(初更)¹⁾도 거윤택 괴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헝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헝나나 갑시나 주염 죽도 헝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²⁾을 옥지읍(玉脂泣)게³⁾ 꾸어 너고,
간 이근⁴⁾ 삼해주(三亥酒)⁵⁾을 취(醉)토록 권(勸)헝
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헝고 큰 언약(言約) 헝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헝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헝면 혈마 어이홀고.

㉡헌 먼덕 수기 스고 즉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
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즈칠 뿐이로다.
와실(蝸室)⁶⁾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B]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새배⁷⁾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⁸⁾은 이너 한(恨)을 도우
는다.

종조추창(終朝惆悵)⁹⁾헝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동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까운 저 소뵈¹⁰⁾는 벗보님¹¹⁾도 도홀세고.

가시 영권 목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러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흔 꿈을 꾸언지도 오릭려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¹²⁾헝야 어지버 이저써다.

첨피기옥(瞻彼淇澳)¹³⁾헝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¹⁴⁾들아 낙디 헝나 빌려스라.

노화(蘆花)¹⁵⁾ 김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넝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흔 백구(白鷗)야 오라 헝며 말라 헝라.

다토리 업슬슨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無狀)흔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렛노라.

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으며다 백년(百年) 살나.

원헌이는 몇 날 살고 석승이는 몇 히 산고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헝건마는

㉥넝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은 쫓은 업노왜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어휘 풀이]

1) 초경 -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첫째 부분(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2) 수기치 - 수평. 3) 옥지읍게 - 구슬 같은 기름이 튀어 오르게. 4) 간 이근 - 갓 익은. 5) 삼해주 - 정월 셋째 해일(亥日)에 빛은 좋은 술. 6) 와실 - 달팽이 껍질같이 좁은 자신의 방을 겸손히 일컫는 말. 7) 새배 - 새벽의 옛말. 8) 대승 - 봄에 밭 갈기를 독촉한다는 오디새. 9) 종조추창 - 아침 이 마칠 때까지 슬퍼함. 10) 소뵈 - 쟁기의 사투리. 11) 벗보님 - 쟁기의 날이 잘 선 모양. 12) 위루 - 누가 됨, 거리낌이 됨. 13) 첨피기옥 -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봄. 14) 유비군자 - 교양 있는 선비. 15) 노화 - 갈대 꽃.



핵심점점

<누항사(陋巷詞)>

☑ 시구 풀이

• 초경(初更)[제역 7~9시]도 거윤택 괴 엇지 와 겨신고.

-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십니까?”

• 연년(年年)[매해]에 이러헝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가난한 집]애 혜염[한글이름] 만하
왓삽노라.

- “해마다 이렇게 하기 구차한 줄 알지마는, 소 없는 가난
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 농사일에 필수인 소가 없어서 빌리러 다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작품은 양반의 신분인 작가가 자신의 현재 처지와 속마음을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 까닭에, 작품 속 화자의 모습은 작가의 분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화자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공허나 갑시나 주엄 족도 허다마는,

- “공짜로나 값을 받거나 간에 빌려 줌직도 하지마는,
- 여기서부터 소주인의 말이다.

•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雉)⁽⁸⁾을 옥지읍(玉脂泣)⁽⁹⁾ 꾸어 너고,

-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사람이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오르게 구워 내고

• 간 이근⁽¹⁰⁾ 삼해주(三亥酒)⁽¹¹⁾을 취(醉)토록 권(勸)허거든, 이러한 은혜(恩惠)를 어이 아니 갑홀넉고,

-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값은 것인가.

• 내일(來日)로 주마 허고 큰 언약(言約) 허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와라.

-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굳게 약속하였기에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 어렵구려.”

- 여기까지가 **소주인의 말**: ‘옆 집 사람’에게 소를 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름 아닌 술과 안주를 대접받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집 주인의 모습은, 소를 빌리려는 사람의 다급하고 절박한 처지를 고려하는 인정어린 모습 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을 보다 중요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소주인의 말하기 방식: 화자에게 소를 빌려줄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해 화자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말하

기 반상이다. (후편 말하기)

•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홀고,

- 진실로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설의법)
- 주인의 거절에 대해 달리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체념하고 마는 ‘화자’의 모습이다.

• 헌 먼덕[헌으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 수기 스고 축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음성상징어)

-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어슬렁 물러나오니

- ‘헌 먼덕 수기 스고’ 부터는 실생활에서 민중들이 사용하는 대화 형식의 말투가 아닌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혼잣말로 표현하고 있는 독백체에 해당한다.

•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췌이로다.

-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만 짚을 췌이로다.
- 너무도 보잘 것 없는 모습에 개조차 무시하여 짚어대는 장면이 연상되는 부분으로, 화자를 향해 짚는 개는 화자

의 누추한 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어시라.

-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느냐.(설의법)

•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식배를 기다리니,

- 북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느다.

- 무정한 대승새(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

- **‘대승’**: 시적 화자의 한을 고조시키는 대상. 봄에 밭갈기를 독촉한다는 오디새.

• 종조추창(終朝惆悵)허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느다.

-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 없이 들리는구나.

- 소 빌리기에 좌절한 ‘나’가 밤새 슬퍼하다가 새벽녘에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바깥 풍경인 농가 소리가 들리는 먼 들을 바라보며 화자는 한스러운 신세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 화자는 평소에도 즐겁게 들던 농가에도 흥이 나지 않아 하며 한숨만 쉬고 있다. 소를 빌리지 못한 화자의 실망, 안타까움, 참담함이 드러난다.

•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 아까운 저 조취⁽¹⁶⁾는 벗보님⁽¹⁷⁾도 도호세고,

-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날)도 좋구나.

•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容易)케 갈려마는,

-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으면마는,

•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 빈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 봄갈이도 거의 지났다. 내팽개쳐 던져 버리자.

- 애써서 농사일을 해내려는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 있는 화자의 소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강호(江湖) 흥 꿈을 꾸언지도 오릭려니

-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꿈을 꾸지도 오래더니

-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 자연 친화적 태도

• 구복(口腹)이 위루(爲累)⁽¹²⁾허야 어지버 이저져다.

-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아 다 잊었도다.

• 침피기옥(瞻彼淇澳)⁽¹³⁾허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 이 위루(爲累)⁽¹⁸⁾허야 어지버 이저져다.

• 침피기옥(瞻彼淇澳)⁽¹⁹⁾허디 녹죽(綠竹)

- 녹죽=푸른대나무

• 도 하도 할샤.

- 많기도 많구나
- 유비군자(有斐君子)²⁰⁾ 돌아 낙덕(落德) 하나 빌려주나.
-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낙덕 하나 빌려주나.
- 노화(蘆花)¹⁵⁾ 곱든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 갈대꽃 곱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벗이 되어,
- 넘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러라.
- 임자가 없는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늘으리라.
- 화자의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인 욕심 없이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자연친화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자연을 이렇게 '친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연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생계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이러한 모습은 본 지문 앞부분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화자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기에, 즉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기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무심(無心)^[무심함] 흐 백구(白鷗)^[백매기]야 오라 흐며 말라 흐랏.
-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하랏. (설의법)
- 자신의 눈앞에서 날고 있는 갈매기를 본 화자는 갈매기가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 마냥 갈매기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람인 화자와 동물인 갈매기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둘 사이의 경계 즉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즉 자연친화의 소망을 이루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생각하노라.
- 자연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과 그에서 비롯되는 갈등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므로, 나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 무상(無狀)호^[세상을 향한 선명이나 공적이 없음]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의지나 취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스리마는,
- 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랴마는
-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 두세 이랑 되는 밧과 논을 다 목혀 던져 두고,
- 화자의 이러한 태도는 '농사일을 좀 해보려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태도일 것이다.
-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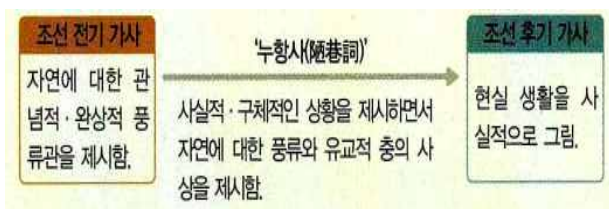
- 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 '안빈낙도'하려는 삶의 자세와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자신에 대한 경계.
- 죽은 '밥'에 비해 좋지 않은 음식이고, 이러한 '죽'마저도 화자가 편히 먹을 수 없는 형편임을 알 수 있기에, 현재 화자가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랑', '밧논', '죽' 등을 통해, 본 작품이 '현실에 밀착한 일상의 언어'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성은 본 글이 필자의 일상적인 체험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자신이 처한 삶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적인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닉 빈천(貧賤)^[가난하고 천한] 슬히^[살게] 너겨 손을 헤다^[내놓는 다] 물너가며,
- 나의 빈천함을 슬게 여겨 손을 내놓는다고 물러가며,
- 내게 오지 말라고 손을 짓는다 해서 나에게서 물러갈 것이며 → 내가 가난을 싫어한다 해서 가난이 내게 오지 않지는 않을 것이며
-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오겠는가?
- 추상적인 대상인 '빈천'과 '부귀'를 화자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인 것 마냥 대하고 있다.
- 인간(人間) 어닉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설의법)
- 자신에게 닥친 가난을 물리칠 수 없다는 시적 화자의 운명론적 사고 방식이 드러난다.
-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오며다 백년(百年) 살나.
- 가난하다고 해서 일찍 죽고 부유하다고 해서 오래 살겠는가.
- 삶과 죽음은 모두 정해진 운명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 원현(元玄)^[북 시대의 청빈하게 산 학자]이논 몇 날 살고 석승^[진나라 때의 큰 부자]이논 몇 히 산고
- 청빈하게 살았던 원현이란 사람이 청빈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도 아니며, 큰 부자로 살았던 석승이란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오래 산 것도 아닐 것이로다.
- 가난하든 부유하든,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닌,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게 될 뿐이다
- '원현'과 '석승'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원현은 가난한 삶을 산 학자이고 석승은 진나라 때의 부자이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제시하여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이 인생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화자의 삶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빈이무원(貧而無怨)^[가난하나 원망하지 않음]을 어렵다 흐건마는
-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 안분지족의 태도.
- **늑 생애(生涯) 이러호되 설은 뜻은 업노래라.**
-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다.
-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서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빈이무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죽히 여기노라.**
- 보잘 것 없는 내 생활일지언정 나는 이를 충분하다 여기노라
- ‘단사표음(簞食瓢飮)’: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단사’) 표주박에 든 물(‘표음’)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업노래라.**
- 평생 내 뜻이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과는 무관하노라
- ‘온포(溫飽)’는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으로, 생활에 아쉬움이 없이 넉넉함을 이르는 말이다.
- 사용된 어휘들을 살펴봤을 때, 고유어와 한자어가(‘지취’, ‘빈천’, ‘부귀’, ‘빈이무원’, ‘단사표음’, ‘온포’ 등) 별다른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섞여 두루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태평 천하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흐리 늑 이시리.**
-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을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되로 살렷노라.**
- 그밖에 나머지 일이야 타고난 대로 살아가겠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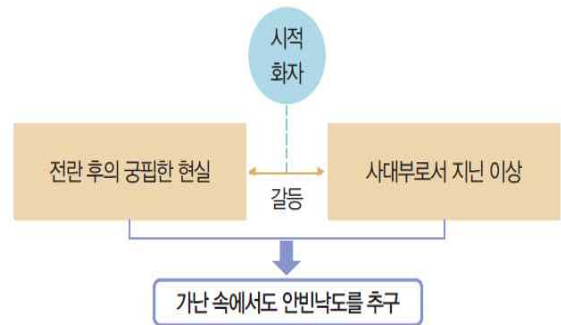
☑ 특징

-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보여 줌.
- 감정을 현실적인 언어로 직접적으로 드러냄.
- 열거, 과장, 대구, 설의법 등의 표현법이 사용됨.
- 현실적인 언어로 생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 대화체를 사용하여 실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농촌의 일상생활 어휘와 어려운 한자어가 혼재되어 사용됨.
- 전쟁(임진왜란) 직후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조선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인 <누항사>의 비교



	조선전기 가사	<누항사>
공동점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과 벗하며 살고자 하는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함	
차이점	현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완상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려냄	전란 후의 궁핍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냄



※ 박이로, <누항사(陋巷詞)>

- 주제: 누항에 물려 추구하는 빈이무원(貧而無怨)의 삶
- 해제: 이 작품은 1611년(광해군 3)에 박이로가 지은 가사이다. 그가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내려가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한음 이덕형이 그를 찾아가 누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이 누항에서 겪고 있는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과 선비로서 가져야 할 삶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진솔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 구성
 - [서사]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 일념으로 살고자 함.
 - [본사 1] 충성심으로 벼백전 고루했던 전란에 대해 회상함.
 - [본사 2] 전란 후 돌아와 밭소 농사를 짓고자 함.
 - [본사 3]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빌리고자 함.
 - [본사 4] 소를 빌려 갔다가 수몰을 당하고 돌아옴
 - [본사 5] 집에 돌아와 야박한 세터를 한탄하며 눈물을 토함.
 - [결사 1] 자연을 벗 삼으면서 절로 늙기를 소망함.
 - [결사 2] 빈이무원하는 가운데 충로, 화형제, 신봉우 등에도 힘쓰고자 함.



'개념' 있는 킹콩

1. 이 작품에는 유교적 이상과 현실 생활의 어려움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 있다.

[O X]

2. 이 작품에는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보장되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양쪽 모두에게 소외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O X]

3. 이 작품에서 화자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O X]

4. 소 주인은 화자에게 소를 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O X]

5. 이 작품은 화자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 X]

6. 농가(農歌)를 듣고도 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대부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O X]

7.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뿐이로다.'는 위축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O X]

8. '강호(江湖) 흔 썸(을 꾸언지도 오티려니 /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햏야 어지버 이저쩌다.'는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O X]

9.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자는 자연친화적인 삶의 결심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O X]

10. 시적 화자는 농사를 지으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

[O X]

 누항사 | 박인로

[개념있는 키크]

①O ②O ③O ④X ⑤X ⑥X ⑦O ⑧O ⑨O ⑩X

